

2007년 설비투자 증가율 크게 둔화

산업은행, 84조9000억원으로 0.4% 증가 그쳐 ... 수출부진에 IT 투자도

국내기업들의 2007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6년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은행은 국내 83개 업종, 3598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<2007년 설비투자 계획>을 조사한 결과, 2007년 설비투자는 84조9000억원으로 2006년보다 0.4%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12월12일 발표했다.

조사대상의 2006년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11.6%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.

제조업의 설비투자가 IT(정보기술)산업의 투자감소 영향으로 2.5%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, 제조업 중 대기업 설비투자는 1.7%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4.8%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수출기업의 설비투자가 세계경제의 둔화 전망에 따라 0.1%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, 내수기업은 내수둔화 영향으로 7.1%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.

제조업의 투자계획을 동기별로 보면,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한 투자가 총투자액의 71.2%를 차지했고, 투자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총 소요자금의 85.4%를 내부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은행 관계자는 "IT산업의 투자 감소와 비IT산업의 증가세 둔화로 2007년 설비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"면서 "설비투자 증가율 둔화는 국내총생산(GDP) 성장의 둔화와 잠재성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"고 우려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21>